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창조도시재생, 인문학적 상상력이 핵심이다



이무용

10월 광주는 축제도시다. 풍성한 '문화만찬' 앞에서 뭘 어떻게 먹을까 행복한 고민이 앞선다. 그런데 뭘가 허전하다. 왜 이러한 만찬을 즐겨야 하지? 이러한 축제들은 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한 거지? 감이 잘 안잡힌다.

광주비엔날레,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추억의 7080 총장축제, 세계김치문화축제, 광주정음성 국제음악제, 공동거리예술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등...

10월 광주는 축제도시다. 풍성한 '문화만찬' 앞에서 뭘 어떻게 먹을까 행복한 고민이 앞선다. 그런데 뭘가 허전하다. 왜 이러한 만찬을 즐겨야 하지? 이러한 축제들은 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한 거지? 감이 잘 안잡힌다.

도시축제 마스터플랜, 축제거버넌스 조직모델, 축제브랜딩 전략, 대표축제와 축제체계 정립 등 축제정책의 부재 때문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광주에 도시재생추진단이 발족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광주도시공사와 주축을 이루고 자문위원단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역시 뭔가 허전하다. 시민이 빠져 있는 느낌 때문일까? 도시재생이 하드웨어 개발 중심으로 논의될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일까? 문득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사회도시학자 때오도로 폴 김의 저서,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가 생각난다. '과과된 도시를 살리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이 책의 부제에서 보듯, 그는 도시재생의 철학과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축제를 도시재생의 네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창조도시를 추구하는 광주의 도시재생과 축제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심은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그의 논의를 빌어 창조도시재생을 위한 네가지 핵심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와 파티 만들기다. 축제의 본질은 시민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예술을 향유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문화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선사하여 도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꿈과 희망과 이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도시 전체가 축제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도시란 하나의 연극무대라는 스페인 건축가 보필의 말처럼, 도시의 문화적 맥락과 장소의 역사적 환경을 존중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의미있고 존중받으며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의 사회적 장소 만들기다. 시민들의 만남과 사고, 상호 존중과 신뢰, 친절함이 묻어나는 광장, 거리, 공원 등 소통의 공공공간이 풍부해야 한다. 시청, 의회, 대학 등 공공기관들이 시민들의 일상공간으로 활짝 열려야 한다. 느낌의 철학자 피에르 상소의 말처럼, 도시는 앉고 서고 걷고 말하고 쳐다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곳이다. 그래서 도시는 인간을 위한 곳, 서로를 위한 장소, 인격이 존중되는 장소여야 한다. 그래야 품격의 도시다.

셋째, 역사 보존의 증거 장소 만들기다. 도시의 옛터는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영혼의 장소(spiritual place)다. 도시는 시대의 유산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후손들에게 상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도시역사의 흔적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술적

가치가 더해져 독특한 보물이 되고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 물론 단순 보존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꼭 필요한 장소로 만들어야 진정한 복원이다.

이를 위해서 유류·폐공간을 역사가 숨쉬는 장소로 드러내는 창조공간 만들기, 우리 도시의 기원이자 뿌리인 신창동 선사유적지와 광주읍성의 문화가치 복원, 구 도청별관과 505보안부 대안터 등 도시역사의 핵심자원인 오일장소의 복원, 광주민속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의 유물을 일상에서 살아숨쉬게 하는 도시박물관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본질과 기원을 의미하는 상징 만들기다. 도시철학, 비전,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하며 생활화하는 도시브랜드로서 다양한 상징물들이 조성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장소들과 건물들이 공동의 삶이 추구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조화와 일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상징 장소들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정체감을 주는 랜드마크(land mark), 삶의 꿈을 펼치게 해주는 퓨처마크(future mark)와 러브마크(love mark) 만들기, 입체적인 도시관문 프로젝트 만들기, 시민을 위한 최고의 편의시설이자 놀이터로서 시청과 의회 공간 만들기가 요구된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 특급호텔 특혜 너무나한 것 아닌가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들어서는 특급 호텔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말 개관 예정인 이 특급호텔은 건립 초기부터 시유지 저가 매입, 아파트 부지로의 용도 변경 등 광주시로부터 너무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호텔과 맞은편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공중 통로'를 개설하면서 광주시가 사업비 가운데 2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자본 유치에 있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제공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지역현안 가운데 하나인 특급호텔 유지는 관광기반이 취약한 지역 특성상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해 시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인센티브는 순전

히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특급호텔에 대한 시의 지원은 절차와 투명성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우선 광주시는 특급호텔 사업비 783억 원의 내역을 파악하지도 않고 호텔 부지 6108㎡의 시유지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각했다.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 및 1·2종 주거지역인 3만 3000여㎡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게 뻔하다. 시는 마땅히 지원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과 호텔 건설비·초기운영비 등을 비교해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따져야 했었다.

이런 과정도 없이 또다시 호텔 편의 시설 설치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없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공중 통로' 개설비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낙지파동' 서울시 어민피해 간과해선 안돼

낙지 중금속 파동의 당사자인 서울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 발표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식약청이 최근 낙지 내장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고 15배가 나왔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낙지, 문어, 꽃게 등 196건을 수거해 납, 카드뮴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발표하지 않았는가.

특히 식약청 관계자가 "체중 55kg 성인 기준으로 1주일내 내장을 포함한 낙지 2마리, 꽃게 3마리를 평생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 음식이 해롭다고 하면 여러 번 수치를 단순 비교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서울시의 성급한 판단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식약청은 서울시에 낙지머리 내장에 대해 검체 채취 부위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하지 말라고 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검사를 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기준조차 없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작금의 혼란과 어민 피해를 불러온 것이다.

추석 명절 출하를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의 이같은 발표로 지난 9월 한달 무인·신안 등지의 낙지 생산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무려 32억 원에 달한다. 8월 중순 이후 낙지 어획량이 작년 대비 40~50%가 줄었음에도 낙지 가격이 오히려 크게 떨어져 어민 소득이 40% 가까이 감소했다.

어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고, 무인과 신안군의회는 소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소리는 서울시가 어떤 식이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사과와 관계자 문책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그럼에만 우리나라 수도 서울시로서 본분을 찾는 길이다. 어쩔쩔 거리다간 오히려 명예가 더 훼손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고

양중열



10월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물결기 시작한 단풍이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우리 지역 내장산과 백암산에도 10월 하순과 11월 초에는 절정을 이룰 것이라 예상됩니다.

丹楓勝於春花(단풍승어춘화: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옛날 어진이 교육용으로 쓰여 진 學語集(학어집)이라는 한문 교재에 나와 있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은 가을산을 보면 늘 생각나는 글귀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장산 국립공원을 찾는데 그 가운데서도 백암사

리 공원의 직원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모두 대청소에 참여하는 때도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각자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생겨난 쓰레기가 없으면 다음에 산을 찾는 사람들도 즐겁고 기분 좋게 하루를 즐길 것이며, 명랑한 사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것이지 여기는 굴이나 과일 껍질도 오물원이 되므로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행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했을

내장산·백암산 단풍 즐기시려면

주변의 얘기단풍이 내장산의 단풍보다 더 예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고 지 해마다 백암산 탐방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킴이로 3년째 일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을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공공질서와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만 아직도 몇몇 사람이 산행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금지된 곳에서 취사행위로 인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국운의 상징과 같은 울창한 숲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는 이 때 만에 하나 우려되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행시에는 인화물질을 가져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다녀간 뒤에 여기 저기 널려있는 쓰레기를 줍기 위해 우

때는 지정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합니다. 한 두 사람이 도로상에 무단으로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체증이 생기고 모처럼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짜증스러워 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립공원에서는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애완동물이나 고양이를 가지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뭇가지 등을 꺾거나 풀을 뽑는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 지정한 탐방로를 벗어나 사소한 사고라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연경관을 아끼고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나라사랑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전직 교사·내장산 공원지킴이)

기고

최재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현장에서 체감 못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내 117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실태를 파악한 후 내린 결론이다.

특히 어려움을 호소한 업체들 중 75%는 종사자수가 50인 미만의 소기업이었고,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도 71.6%가 어렵다고 응답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 전체가 경영곤란의 뒀에 걸려 있는 셈이다.

최근 사정은 더욱더 여유롭지 못하다. 광주시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 전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하며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도 그 성과는 고스란히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다.

0.0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의 자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5%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 상황에서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등의 평균치 지표경쟁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왜곡할 뿐이다.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이자 체감경기의 핵심인 중소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을 호소하며 연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경기회생이 감지되지 않는다. 활력이 사라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해 온 '대

중소 경쟁력 강화 정부가 나서라

체의 2.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수치도 수년째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경제지표상 한국경제는 호황인데 지역경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광주·전남은 특정 대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일극체제'로 되어 있다. 광주지역 지역 총생산의 60~70%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소수 대기업의 몫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협력업체도 없고 자립형 중견업체도 없다. 부천이나 평택, 창원 지역의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겠지만, 필자는 중소기업 경제와 대기업 정책의 함수관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 수출 대기업들은 매년 역

기업 프렌들리' 정책 기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물경제 온도차를 더욱더 벌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동인(動因)이었다는 점은 현장 정서를 보면 확실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고양시키겠다는 의지는 읽히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수요자인 산업현장을 살피고 취약산업을 끌어안는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고속도로 견인차 난폭운전 처벌규정 강화해야

얼마 전 가족을 태운 채 호남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4차선으로 시속 100km 속도로 달리던 중이었는데 갓길에 서있던 대여섯 대쯤의 견인차 중 두 대가 연달아서 갑자기 내가 달리던 4차선으로 확 끼어들어 오는 게 아닌가.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100킬로로 달리고는 아무런 신호도 없이 내 차로로 끼어들어 견인차를 피하느라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옆의 3차선으로 피해야 했고 그 순간 3차

선으로 달려오던 덩크트럭이 끼어들며 급정거하는 소리가 내 귀청을 찢을 듯이 들려왔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거친 속도로 후진하는 거인차들. 다른 차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와 후진 위반시 벌점 없이 5만원의 범칙금만 부여되는 현행 처벌규정을 강도 높게 고쳐야 한다. ▲감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無等鼓

1597년(선조 30년) 9월 16일(음력) 아침, 200여척의 일본 군함이 순조(順潮)를 타고 울돌목으로 들어섰다. 70여척이 입구쪽에 남고 나머지 133척이 해협으로 진입했다. 해협이 좁아 한꺼번에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일본 수군을 맞은 조선 군함은 고작 13척이 전부였다. 전투가 시작됐다.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일자진 전법(일자 황렬로 늘어난 진형)을 사용한 조선 군은 초반 적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필생즉사(必生即死)'의 정신을 주문하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힘을 얻은 조선군은 사력을 다해 싸워 재현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000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인데다 조류의 영향으로 해전 재현은 20여분에 불과하지만 현장에서 충무공과 남도민들의 구국정신을 체감하면 어떨까.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명량대첩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